

# 영문법을 활용한 프랑스어 문법 교육

김경석  
(충북대학교)

**Kim, Kyung-Suk. (2011). Education of French grammar via English grammar.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4, 115-135.**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educational contents of French grammar by means of English grammar. As one of their strong points, English has simplified the verbal and nominal inflections, but French has done the regular shape of its pronunciation. As a matter of course, they differ in the pronunciation, words, and expressions. Nevertheless, French and English have shared so many things through their history: their vocabulary and grammar on the Greco-Roman legacy have had mutual influences through Norman Conquest(1066)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So these two languages have grammatical common concepts, which are not at all: for example, the parts of speech, word order, modes, tense, passive voice, relative clauses, etc. There is not only grammatical similarity but also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languages. Basically, they have the word order SVO but French has the case SOV that contains clitic pronouns. They also show subtle disparities in the mood, the tense, the frame of verbal sub-categorization, the hiatus, etc. Though they broadly have common concepts of the article, its ordinary uses are not same. In the passive voice and the relative clauses, there is a little subtle distinction. But English grammar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French grammar. In consequence, students who have knowledge of the former can easily acquaint the latter. Professors may lead students to reach to a higher level of French grammar by explaining common concepts and emphasizing different ones between these two languages

**Key Words:** English grammar, French grammar, mutual influences, common concepts, similarity, grammatical difference

## 1. 서론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프랑스어와 영어는, 특히 어휘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프랑스어는 골족의 언어(gaulois)와 프랑크족의 게르만어를 흡수한 통속 라틴어(latin vulgaire)를 근간으로 하며, 노르망디 공국의 기욤(Guillaume: 영어로는 William)이 영국을 정복(Conquête Normane: 1066)한 이후, 300여 년간 프랑스어가 영국왕실의 공용어가 됨으로써, 영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에는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에 의해 영어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강대해진 미국

의 힘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영어가 프랑스어에 영향을 미치면서, 영어와 프랑스어는 어휘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게 되었다.

문법이란 용어는 플라톤의 ‘Grammatikê Tekhnê’를 어원으로 하는데, 여기서 ‘Gramma’란 문자와 그에 따른 소리를 의미했으며, 라틴어 ‘Grammatica’는 그리스어 ‘Littera(문자)’에서 모사된 ‘Litteratura(문학)’이라는 용어가 가졌던 의미와 지금의 문학이란 용어가 갖지 못하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Guibert, 1976, p. 2285). 중세에는 라틴어 문법이 서양 언어들의 전범이었고, 문법학자들은 라틴어 문법에 따라 자신의 문법을 기술하려고 노력한 결과, 프랑스어와 영어는 상당한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프랑스어 관련 학과는 필수 혹은 그에 준하는 교과목으로 프랑스어 문법을 개설하고 있다. 그런데 문법 과목은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필수적이지만 따분하고 어려운 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최근의 외국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교육을 지향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법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고, 학습자는 국어 및 영어 문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용어와 개념의 난해함과 따분함에 질려있고, 문법은 음성적 실현이나 그 가치와 관련한 음성학 및 음운론, 동사나 명사의 활용을 다루는 형태론, 문장의 구조와 연관한 통사론, 어휘 혹은 문장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론, 다양한 텍스트의 이해와 관련된 문체론 등 매우 이질적인 언어학 하위 분야들로 혼합되어 구성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대부분은 영어를 제1외국어로 먼저 학습하고 그 바탕에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적지 않은 프랑스어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학습한 영문법 지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외국어 교육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해, 영어 및 영문법의 활용은 학습자들이 프랑스어를 접할 때 보다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영문법 지식의 활용이 오히려 프랑스어 문법을 잘못 이해하게 하여 적절치 못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어의 특유한 언어 현상을 영문법과 동일하게 보이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를 영어의 유사한 개념이나 현상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영어만이 가진 특징을 프랑스어에 적용함으로써 영문법 지식이 오히려 프랑스어 문법의 이해에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 문법의 교육에 학습자들이 이미 획득한 영문법 지식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프랑스어와 영어가 상당히 많은 공통성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이 두 언어의 어순이나, 시제,

관사의 사용, 접속법을 비롯하여 동사가 갖는 하위범주화 틀(sous-catégorisation)과 대명 동사 및 수동태의 용례, 발음과 관련한 문제, 관계절의 구성에 있어 그 유사성과 상이성을 제시함으로써 영문법 지식을 활용한 바람직한 프랑스어 문법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프랑스어와 영어의 역사적 관련성

프랑스어는 역사적 배경으로 보아 소수의 게르만어적 특성과 다수의 라틴어적 특성을 혼합하면서 발전한 언어이기 때문에<sup>1)</sup> 어휘 대부분을 라틴어에 빚지고 있다. 어휘의 약 80%를 라틴어에서 차용한 프랑스어는 문법적 내용까지도 라틴어 문법을 모델로 구성하였다. 프랑스어는 통속 라틴어로부터 많은 변화를 거쳐 민중어(*langue populaire*)와 학술어(*langue savant*)로 구별되면서 발전해왔고, 그 변화는 음성적,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이창순, 2000). Chaurand (1977)에 의하면, 프랑스어는, 역사를 통틀어, 고대 그리스어에서 26개 그리고 라틴어에서 33개의 접두사를 차용하였으며, 접미사의 대부분도 이 언어로부터 물려받았다. 영국이 로마에 의해 정복되고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영어 역시 라틴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초기 영어에 대한 라틴어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앵글로색슨족의 그리스도교 개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다양한 라틴어가 영어에 도입되었다.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고전 문명, 철학, 종교 및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수학과 기하학, 생물, 지리, 의학 분야에서도 라틴어의 전통이 강하게 새겨졌다(박영배, 2003).

842년부터 900년경까지 프랑스는 바이킹족의 한 부류인 노르만족의 침략과 약탈로 끊임없이 고통 받고 있었다. 단순왕 샤를르(Charles III le Simple)는 911년 바이킹의 족장 롤로(Rollo)에게 프랑스 서북부지방인 노르망디를 봉토로 주고 그곳에 정착한 롤로와 그 추종자는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1066년 영국의 에드워드(Edward) 왕이 족자 노르망디의 공작인 기욤은 자신이 왕위 계승권자라는 이유로 왕위의 계승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기회로 같은 해 10월 14일 헤스팅스(Hastings)에서 영국과의 전쟁을 시작하여 결국 승리한 기욤은 영국의 국왕이 되었고, 영국에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를 이식하였다(Baugh, 2000). 이를 계기로 프랑스와 영국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는 영어뿐만 아니라 영국 역사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으며, 그 일례로 영어 철자법의 대대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1) 프랑스어는 고티족의 언어에서 70 여 개의 어휘와 프랑크족의 언어에서 400 여 개의 어휘를 흡수했다.

“French influence is most obviously marked in the spelling. The introduction of French spelling convention gives the superficial impression that English changed very rapidly in the years following the Norman Conquest” (Knowles, 1997, p. 49).

프랑스어가 영국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프랑스어는 영국 귀족사회의 공식어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영국 사회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중적 언어구조를 갖게 되었다. 영어는, 중세 전반(1250년)까지 900여 개의 프랑스어 어휘를 차용하였고, 중세 후반(1250-1400)에는<sup>2)</sup> 프랑스어 사용이 대폭 줄어들고 때마침 중산계급이 대두하면서 영어의 위상이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상류 사회의 교양어로 많은 프랑스어 어휘들이 유입되었다.

프랑스어는 기원 이래 오늘날까지 17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에서 수천 개에 달하는 어휘를 차용했다. 이러한 어휘 교류는 여행, 과학, 문학 작품의 번역, 무역, 이주 같은 평화적 방식뿐만 아니라 전쟁과 정복이라는 물리적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Giust, 2004, p. 45). 프랑스어 어휘의 대부분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고대 프랑스어는 원주민의 언어였던 골루아어와 프랑크족의 프랑크어를 흡수하고, 중세에는 지방어와 아랍어, 네덜란드어에서, 16세기에는 이탈리아어 및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에서, 18세기에는 이탈리아어와 영어, 독일어, 슬라브어, 스칸디나비아어 등에서 다양한 어휘를 받아들였다(Walter, 1988). 19세기와 20세기에는 영어와 아프리카어, 동양어 등으로 차용 범위가 확대되어 프랑스어의 어휘가 매우 다양해졌다. 프랑스어에 대한 영어의 영향 역시 산업혁명 이후 어휘부분에서 크게 증대되어, 영어의 침투 현상을 비꼬는 Français(français + anglais)라는 합성어까지 등장하게 된다.

### III. 두 언어 사이의 상이성

프랑스어와 영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도유럽어족이라는 토양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영향을 받고, 비록 게르만어파와 로망스어파라는 하위 범주로 나뉘지기는 하지만,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았다. 영어의 가장 큰 장점은 굴절을 단순화한 것이다. 대명사를 제외하면 모든 명사의 격이 사라지고 단수와 복수의 구분만이 가능할 뿐, 성(genre)은 자연적 성이 적용되어 인간이나 동물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물은 중성으로 표현된

<sup>2)</sup>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필립 오귀스트(Philippe Auguste)가 노르망디를 회수하면서 양국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이다.

다. 시제 역시 현재와 과거로만 변화하고<sup>3)</sup>, 형용사의 굴절도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졌다.<sup>4)</sup> 동사의 인칭에 따른 변화도 일부 불규칙 동사를 제외하면 최대한으로 단순화 되었다. 반면에 프랑스어는 다른 로망스어 계열의 언어보다는 단순해졌지만, 여전히 복잡한 동사 변화와 명사의 성수, 형용사의 성수에 따른 곡용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발음에서는 반대로, 동일한 로마문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하나의 음이 다양한 철자로 표기되거나 동일한 철자가 서로 다른 음가를 갖기도 하지만, 프랑스어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발음의 통일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또한 영어의 형용사는 앞에서 명사를 한정하지만, 프랑스어의 형용사는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sup>5)</sup>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품사<sup>6)</sup>를 비롯하여 관계 대명사, 수동태, 가정법, 주절과 종속절,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접속사 등에 대한 영문법적 개념이 그대로 프랑스어에 적용될 수 있으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용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어의 속사(attribut)와 영어의 보어(complement), 직접/간접 목적 보어(complément d'objet direct/indirect)와 직접/간접 목적어(direct/indirect object), 목적 보어 속사(attribut de complément d'objet)와 목적 보어(object complement), 상황 보어(complément circonstanciel)와 부사적 보어(adverbial complement), 조건법(mode conditionnel)과 가정법(conditional mood) 등이 이에 속한다.

## 1. 어순과 관련한 차이

3) 미래 시제가 별도로 존재하는 프랑스어와 달리, 영어는 'will'이나 'shall'과 같은 조동사를 쓴다는 점에서 독립된 미래 시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동일한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독일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영어가 어느 정도로 단순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독일어는 명사도 네 개의 격을 지니고 그에 따라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와 형용사가 모두 격변화를 하고 동사의 굴절도 아주 까다롭다. 예를 들어 'haben(have)' 동사의 현재형은 'ich habe, du hast, er hat, wir haben, ihr habt, sie haben'으로 변화한다(Briand, 1988, p. 322).

5) 마을이나 도시 이름에도 형용사가 앞에 놓이는 게르만어와 뒤에 위치하는 라틴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Francheville 이 12 개이고 Villefranche 는 21 개인데, 전자는 게르만족의 영향력이 강했던 북쪽 지역에 12 개 중 9 개가 있고 후자는 21 개 중 19 개가 남부 지방에 위치한다(Walter, 1988).

6) 품사는, 그리스어의 'Merê tou logou'가 라틴어의 'Partes orationis'로 번역되었고 중세 프랑스어에서는 '연설의 부분(Parties d'oraison)'으로 쓰이다가 17 세기에 들어서 현재와 같은 '담화의 부분(Parties du discours)'로 고정되었으며, 품사의 역사는 바로 문법의 역사였다(Guibert, 1976, p. 4024.).

프랑스어와 영어는 기본적으로 SVO 라는 어순을 가진 언어이다. 그런데 프랑스어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 외견상 SOV 라는 어순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 (1) a. Je vois Jean. (I see John.) /  
       J'écris une lettre à Jean. (I write a letter to John)<sup>7)</sup>  
 b. Je *le* vois. (I see him.) /  
       Je *lui* écris une lettre. (I write him a letter.)

(1b)의 프랑스어 예문이 보여주듯 목적어인 'le'와 'lui'는 동사 앞에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라틴어에서 파생한 로망스어파의 언어들인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등이 갖는 공통된 현상으로 접어대명사(pronom clitique)라는 이름을 갖는다. 달리 말해, 프랑스어 목적어 대명사는 영어의 인칭 대명사(pronom personnel)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대명사의 형태로 동시에 나타날 경우 정해진 어순에 따라 배열된다.

- (2) a. Ton père *te* prête la voiture?  
       (Does your father lend you the car?)  
       -Non, il ne *me la* prête jamais.  
       (No, he never lends it to me.)  
 b. Ton père prête la voiture à Jean?  
       (Does your father lend the car to John?)  
       -Non, il ne *la lui* prête jamais.  
       (No, he never lends it to him.)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프랑스어의 순서는 1인칭과 2인칭 목적어(me, te, nous, vous), 3인칭 직접 목적어(le, la, les), 3인칭 간접목적어(lui, leur) 순으로 배열한다. 영어는 통상적으로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에 선행하지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바뀔 경우 간접목적어 앞에 적절한 전치사(동사에 따라 to, for, of)를 둔다.

- (3) a. I will show *you* my photographs of France.  
       b. I will show *them to you*.

<sup>7)</sup> 여기에 나타난 영어 예문은 Stillman & Gordon (1999)를 참고하였다.

프랑스어에서, 일부 동사의 경우, 두 개의 목적어가 동시에 나타나지 못하면서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 강세형 인칭대명사’로 동사 뒤에 나타나기도 하나, 영어에서 직접 목적어는 그 문장에서 목적어로 되고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와 함께 뒤에 놓여 부사구가 된다.

- (4) a. Il *nous* présente à *eux*.  
b. She presents *us* to *them*.

명령문에서 영어는 평서문과 어순에 있어 주어와 생략된다는 특징 외에 달라지는 점이 없으나 프랑스어의 긍정 명령문은 평서문과 다른 어순을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강세형 인칭 대명사(moi, toi, lui, elle, nous, vous, eux, elles)가 나타나기도 한다.

- (5) a. Montre-*les-moi*. (Show them to me.)  
b. Dites-*nous* ce qui est arrivé. (Tell us what happened.)

강세형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구의 마지막 부분에 강세가 주어지야 하는데, ‘me’나 ‘te’와 같은 약세형 인칭 대명사의 경우 강세를 지니는 모음이 아니므로 강세형의 형태로 변환하게 된다. 하지만 강한 모음을 가진 다른 유형의 대명사가 뒤에 나타나면 강세형 인칭 대명사는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다.

- (6) a. Donne-*m'en*. (Give me some.)  
b. Sers-*t'en*.<sup>8)</sup> (Use it.)  
c. Ne *me la* donne pas. (Don't give it to me.)

(6a) 및 (6b)와 달리 (6c)의 부정 명령문은 대명사 간의 어순이 평서문의 어순과 동일하다.

<sup>8)</sup> 여기에 나타난 ‘m'en’ 혹은 ‘t'en’의 형태는 ‘me+en’과 ‘te+en’이 축약된 것이다. 강세를 줄 수 있는 모음을 가진 ‘en’이 뒤에 더해지면 ‘me’나 ‘te’는 강세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le’와 ‘y’, 그리고 예문에 나타난 ‘en’은 중성 대명사라는 이름을 갖는다. ‘y’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함께 쓰인 명사구(영어의 ‘there’에 해당)나 ‘à+명사구/절’ 전체를 대체할 수 있고, ‘en’은 전치사 ‘de’와 그와 유사한 모양을 가진 ‘관사+명사구/절’을 대신할 수 있으나 유사한 형태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Avez-vous des enfants? (Do you have any children?)’이라고 물었을 때, 프랑스어로는 ‘Oui, j'en ai.’ 혹은 ‘Non, je n'en ai pas.’라고 대답하지만 영어로는 ‘Yes, I have.’ 혹은 ‘No, I don't.’로 대응한다.

직접 목적어 인칭 대명사의 3인칭 단수 남성을 나타내는 ‘le’와 모양이 같은 대명사로서 중성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형태는 인칭 대명사의 용법과는 달리 성수의 변화가 없고 속사나 구 혹은 절을 받을 수 있다

- (7) a. Jean est riche et je *le* suis aussi. (John is rich and so am I.)  
 b. Je crois qu'il est gentil. (I think that he is gentle.)  
 - Je ne *le* crois pas. (I don't think so.)  
 c. Pouvez-vous venir ici ce soir? (Can you come here tonight?)  
 - Oui, je *le* peux. (Yes, I can.)

(7a)와 (7b)에서 대응하는 영어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중성 대명사 ‘le’와 유사한 형태는 ‘so’로 볼 수 있으나, (7c)처럼 (준)조동사가 사용된 경우 영어는 조동사가 나머지 모두를 대체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준조동사 다음의 부정법절을 ‘le’로 받아야만 한다.

의문문의 경우 주어와 동사의 도치를 기본으로 하지만, 영어에서는 ‘be’와 ‘have’가 명사 주어나 대명사와 도치되고 일반 동사의 경우 ‘do’가 삽입되어 도치되나, 프랑스어의 모든 동사는 대명사 주어와 도치되나 일반 명사주어와는 도치되지 않는다.

- (8) a. Est-il/\*Jean gentil?  
 (Is he/John gentle?)  
 b. Parle-t-il français?  
 (Does he speak French?)  
 c. Les étudiants tutoient-ils leur professeur?  
 (Do the students use the *tu* form to their teacher?)

(8a)에서 명사 주어인 ‘Jean’은 동사와 도치되지 못하고, (8c)의 명사 주어는 제 자리를 지키고 이를 대명사로 다시 받아 동사와 도치되며<sup>9)</sup>, (8b)에서는 발음상의 이유로 동사와 주어 대명사 사이에 ‘-t-’가 삽입되고 영어에서 ‘does’의 삽입은 ‘do-support’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또한 영어의 의문문은 언제나 도치되지만, 프랑스어에는 3가지 유형의 의문문이 가능하며, 의문사가 요구될 경우에도 의문사가 제 자리에 있는 경우와 문두로 나올 경우로 나뉜다.

9) 이러한 방식을 복합도치(inversion composée)라 한다.



- (9) a. *Travaillez-vous* ici, madame?  
(Do you work here ma'am?)  
b. *Tu descends* avec moi?  
(Are you coming with me?)  
c. *Est-ce que vous écoutez* souvent la radio?  
(Do you often listen to the radio?)
- (10) a. *Où travaillez-vous*, madame?  
(Where do you work ma'am?)  
b. *Vous travaillez où*, madame?  
c. *Où est-ce que vous travaillez*, madame?

도치된 형태의 의문문은 프랑스어 문법이 가장 권장하는 형태이고, 평서문의 어순과 동일한 의문문의 형태는 가장 구어적인 용례이며, ‘est-ce que’와 결합된 ‘주어+동사’ 구문은 무겁지만 가장 정중한 형태의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도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도치되고, 제 자리에 위치하면(Wh-in situ) 도치되지 않으며<sup>10)</sup>, 의문사가 ‘est-ce que’와 결합할 경우 주어는 동사를 선행한다.

빈도 부사나 부정 어구, 양화사 등과 관련된 어순의 차이도 명백하다.

- (11)a. Jean (*n'*)aime pas Marie.  
a'. \*John likes *not* Mary. → John *does not* like Mary.  
b. Jean embrasse *souvent* Marie.  
b'. \*John kisses *often* Mary. → John *often* kisses Mary.  
c. Mes amis aiment *tous* Marie.  
c'. \*My friends love *all* Mary. → My friends *all* love Mary.  
d. Je lui demande de *ne pas* quitter sa femme.  
d'. \*I asked him to *not* leave his wife.  
→ I asked him *not* to leave his wife.

프랑스어에서 부정문은 ((준)조)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ne’가 뒤에 ‘pas’가 위치하나 영어에서는 일반 동사 뒤에 ‘not’가 분포할 수 없어 의문문에서처럼 ‘do-support’라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부사와 양화사의 위치도 두 언어에서 차이를 보여 영어에서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그 어떤 요소도 개입할 수 없으나, 프랑스어는 동일한 위치에 부사나 양화사가 위치하는 구조를 갖는다. 부정법을 부정할 경우도 ‘ne pas’와 ‘not’의 위치는 두 언어에서 서로 달라서

<sup>10)</sup> 아주 간단한 문장에서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고도 도치되지 않는 형태인 ‘Où tu vas?’ (Where are you going?)가 허용되기도 한다(cf. Kayne, 1984, p. 205).

프랑스어에서는 '(de/à) ne pas Inf'이나 영어에서는 'not to Inf'의 어순으로 나타난다.<sup>11)</sup>

## 2. 시제의 유사성과 상이성

프랑스어는 영어보다 시제가 훨씬 복잡한 것처럼 여겨지고, 실제로도 시제의 형태와 변화가 아주 다양하다. 영어의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라는 틀에 각각 완료 시제가 더해져 6개의 형태가 존재하지만, 프랑스어의 경우 현재와 과거, 미래라는 단순형<sup>12)</sup>에 완료적 의미를 지닌 복합형인 복합 과거와 대과거, 전미래가 있고, 영어는 각 시제에 진행형(continuous tense)을 가지나, 프랑스어는 진행형을 갖지 않으며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는 구문에 따라 지속상이나 반복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 시제에는 지속이나 반복, 상태를 나타내는 반과거(imparfait)가 별도로 존재한다. Imbs(1960)는 동사의 시제를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나누면서, 복합형 시제(avoir/être+p.p.)는 언제나 완료의 기준이 되는 시간적 표현 혹은 절대 시제로 기술된 사건이나 상황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상대 시제에 속하고, 동사의 어미가 변화하는 단순형 시제는 말하거나 글을 쓰는 순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바로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시제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을 영어에 적용하면, 상대 시제는 완료 시제로, 현재 완료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과 그것의 현재 상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과거 완료는 과거 상태와 그 이전의 상황이나 사건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미래 완료는 미래의 상태와 그 이전의 상황이나 사건과의 관계를 맺어준다. 이에 의거하여 프랑스어의 시제와 영어의 시제를 예문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Kayne(1984)과 Pollock(1989) 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생성문법적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였다.

12) 프랑스어에서 '단순형 simple'이란 표현은 형태론적으로 단순하게 어미만이 변하는 경우이며 '복합형 composé'이란 조동사를 취하고 과거분사가 첨가되는 유형이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 'simple'은 상의 측면에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1**  
프랑스어와 영어의 시제

		프랑스어	영어	비고
과 거	절 대 시 제	*단순 과거 Passé simple <sup>13)</sup> 복합 과거 Passé composé	과거 Simple past	
		반과거 Imparfait	지속적 과거 Past continuous	Imperfect
	상 대 시 제	*전과거 Passé antérieur 대과거 Plus-que-parfait	과거완료 Pluperfect	Past perfect
현 재	절 대 시 제	현재 Présent	현재 Simple present 지속적 현재 Present continuous	
	상 대 시 제	복합 과거 Passé composé	현재완료 Present perfect	
미 래	절 대 시 제	단순 미래 Futur simple	미래 Future 지속적 미래 Future continuous	
	상 대 시 제	전미래 Futur antérieur	미래완료 Future perfect	

- (12) a. On *habite* à Paris maintenant.  
(We *live* in Paris now.)  
a'. Tu n'*a* pas encore *fait* tes devoirs?  
(Haven't you *done* your homework yet?)  
b. Ils *finirent* leurs devoirs.  
(They *finished* their homework.)

13) ‘\*’는 현대 프랑스어 구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 b'. Après qu'ils *furent partis*, j'*arrivai* là-bas.  
(After they *had left*, I *arrived* there.)
- c. *Téléphone*-moi quand tu *sera* prêt.  
(*Phone* me when you *are* ready.)<sup>14)</sup>
- c'. Ils *se seront installés* avant le mois de septembre.  
(They *will have moved in* before the month of September.)

(12)의 각 쌍은 현재와 복합 과거(현재 완료), 과거와 전과거(과거 완료), 미래와 전미래(미래 완료)로 짝지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기준 시제였던 단순 과거(12b)와 그 상대 시제인 전과거(12b')가 동사 굴절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어에서 거의 사라지고, 이들을 현재 완료에 해당하는 복합 과거와 대과거가 각각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 (13) a. Ils *ont fini* leurs devoirs.  
(They *finished/have finished* their homework.)
- b. Après qu'ils *étaient partis*, je *suis arrivé* là-bas.<sup>15)</sup>  
(After they *had left*, I *arrived* there.)

그 결과 복합 과거는, 과거 시제에서는 절대 시제 중 하나로 영어의 과거처럼 쓰이기도 하고, 현재 시제에 대해서는 그 상대 시제로 영어의 현재 완료처럼 쓰이기도 한다.

- (14) a. Tu n'*a vu* personne hier soir?  
(*Didn't* you *see* anyone last night?)
- b. *Avez-vous été* en Normandie?  
(*Have* you *been* in Normandie?)

영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4a)는 과거의 용법이고, (14b)는 현재 완료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 완료형과 어우러지는 부사(since, for two years, over the past year, etc.)와 과거와 함께 나타나는 부

14) 미래의 사실일지라도 'when'이나 'as soon as', 'after' 등이 이끄는 절에서 영어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나, 프랑스어는 'quand'이나 'aussitôt que', 'après que' 등과 같은 접속사의 내용이 미래와 관련된 경우 단순 미래로 표현되어야 한다.

15) 복합시제에서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aller, arriver, descendre, monter, partir, sortir, venir etc.)는 조동사를 'avoir(have)'가 아닌 'être(be)'를 사용하는데, 영어의 고대 어법에도 유사한 의미의 동사(arrive, come, fall, go, rise, etc.)는 완료형(His money was gone.)이 프랑스어에서처럼 'be+p.p.'로 만들어졌다.

사(yesterday, just now, ago, etc.)가 구분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구분 없이 가능하고 부사의 종류에 따라 동사의 상(aspect)이 해석된다. 완료적(parfait; perfect) 개념을 가진 복합 과거로는 비완료(imparfait; imperfect)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프랑스어는 반과거(imparfait)라는 시제로 그 불구성을 보완한다.

- (15) a. Qu'est-ce que tu *faisais* quand tu *habitais* à Cannes?  
 (What did you *use to do* when you *lived* in Cannes?)  
 b. J'*allais* tous les jours à la plage.  
 (I *would* go to the beach every day.)  
 c. Quand on est sorti du restaurant, il *pleuvait*.  
 (When we left the restaurant it *was raining*.)

반과거는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과거 행위나 조건을 표현하며, 과거에 지속된 행위(habitais)나 습관적으로 반복된 행위(faisais, allais), 어떤 구체적 행위가 일어나는 배경이나 상태(pleuvait)를 기술한다. 이를 영어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used to inf'나 'would', 경우에 따라 'was raining' 혹은 (15a)의 'lived'처럼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 3. 관사의 종류와 용례 차이

프랑스어 관사와 영어 관사는 그 종류나 용법에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갖는다. 두 언어 모두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지니며, 개념적으로 부정관사는 비한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정관사는 한정적 의미를 담는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영어에 없는 관사의 형태가 존재하며, 이 관사의 형태가 양의 표현과 관련된 부분 관사이다. 부분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양이나 어떤 것의 부분을 표현하는 일종의 부정관사이다. 또한 영어에는 부정관사의 복수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언어 모두에서 정관사는 특정한 명사를 지칭하나(16a), 프랑스어는 대표 단수적 개념을 보여주는 총칭적 명사에 정관사를 요구하나 영어는 관사 없는 명사를 사용한다(16b). 총칭적 의미와 일반적 용법의 정관사 용법은 이 두 언어에서 대조적이다(16c).

- (16) a. Je vais te montrer *le* dessert.  
 (I'm going to show you *the* dessert.)  
 -*Le* dessert que tu as préparé?  
 (*The* dessert (that) you prepared?)

b. *La démocratie et la liberté* sont des traits essentiels de la France.

(Democracy and freedom are basic characteristics of France.)

c. J'adore *la viande*, mais je n'aime pas *la viande* qu'on sert dans ce restaurant.

(I love meat, but I don't like *the* meat they serve in that restaurant.)

(16c)의 영어 표현에서 첫 번째 ‘meat’는 관사 없이 총칭적 의미를 지니나 두 번째 것은 관계절의 선행사이면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이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도 종종 대비적으로 사용된다.

(17) a. Pour moi, *le* rosbif et pour mon ami, *le* canard à l'orange.

b. I'll have roast beef and my friend will have duck in orange sauce.

프랑스어의 부정 관사는 영어의 등가물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다른 한정적 표현이 붙지 않은 직업이나 국적, 종교를 표현하는 명사를 수반하는 ‘il/elle est’ 다음에는 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sup>16)</sup> 식당 등에서 주문할 경우 프랑스어는 부정관사도 그 대상을 지칭할 수 있으나 영어의 경우는 부정 관사를 직접 붙이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단위나 용기를 나타내는 형용사구와 함께 사용한다.

(18) a. Les Bois sont professionnels. Lui, il est avocat et elle, elle est professeur.

(The Bois are professional. He's *a* lawyer and she's *a* teacher.)

b. *Un* café et *un* petit vin rouge, s'il vous plaît.

(*A cup of* coffee and *a glass of* red wine, please.)

주문의 경우와 달리 음식이나 음료의 양이 관여할 때 프랑스어는 부분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영어는 이 경우에 ‘some’이나 ‘any’같은 표현이나 혹은 ‘a cup of’와 같은 숙어적 표현을 빌 수도 있다.

(19) a. Tu veux *du* chocolat ?

<sup>16)</sup> 그러나 품질 형용사가 부가된 속사의 경우 부정관사가 출현하여 ‘Il est *un* gentil étudiant.’으로 표현되고, 지시어 ‘ce’가 이끄는 ‘C'est *un* professeur.’나 ‘Ce sont *des* étudiantes.’에서도 반드시 부정 관사가 쓰여야 한다.

(Would you like to drink *(any)* hot chocolate?)

b. Après mon dîner, je bois *du* thé.

(After my dinner, I drink *(some)* tea.)

프랑스어와 영어의 관사를 구분하는 용례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a. *Le* thé est *une* boisson d'origine orientale.

(Tea is *a* drink that comes from the Orient.)

b. J'aime *le* thé que vous avez acheté.

(I like *the* tea that you bought.)

c. *Un* thé, s'il vous plaît. (*A cup of* tea, please.)

d. Après mon dîner, je bois *du* thé.

(After my dinner, I drink *(some)* tea.)

프랑스어는 총칭적인 경우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정관사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정해지지 않은 양을 표현할 경우에는 부분 관사를 사용하나, 영어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정관사를, 총칭적 개념에는 관사 없이 사용하고, 특정하지 않은 명사 앞에는 부정관사를 필요로 하나, 양과 관련된 경우는 양을 표시하는 'some'과 같은 부정 형용사나 단위 혹은 용기를 나타내는 보충적 표현을 쓰기도 하고 관사 없이 쓰기도 한다.

#### 4. 접속법의 어려움

동사에 실현되는 서법(mode)은 화자가 진술에 대하여 갖는 의도를 나타낸다. 직설법은 사실을 표현하거나 현실을 기술하며, 조건법(영어의 가정법)은 현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가정할 경우를 나타내고, 접속법은 소망이나 욕구, 필요, 감정, 의견, 의심, 제안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그런데 프랑스어의 접속법은 영어보다, 주로 종속절과 관계절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현한다. 중세 영어에서 프랑스어만큼 빈번하게 출현했던 이 서법은, 영어가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대중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동사의 형태소가 약화되면서, 그 구분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에서 접속법은 사실과 반대되거나 가정적 진술을 표현하며, 주로 ‘If-then’ 구문이나 공식적 표현에 등장하며, 현재 시제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were+ 현재분사’로 나타나지만, 일상적 구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와 과거의 가정법

에만 한정적으로 실현된다.”<sup>17)</sup> 프랑스어에서도, 단순 과거나 전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형태적 변화가 복잡하여 접속법 반과거와 대과거는 물론이고 접속법 현재형과 과거형까지도 일상적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문어와 고급 연설문 등에 주로 사용된다.

- (21) a. J'exige que Baudoin *soit* là.  
(I demand that Baudoin *be* there.)  
b. Je veux que tu *reviennes*.  
(I want you *to come back*.)  
c. Je souhaite que Jean *soit* riche.  
(I wish that John *were* rich.)  
d. J'écris l'adresse pour que tu ne l'*oublie* pas.  
(I'll write down the address so that you *won't forget* it.)

예문 (21)은 프랑스어의 전형적인 접속법 문장으로, 주절의 내용이 보어절의 서법을 결정하기도 하고, 종속절의 경우는 접속사에 따라 서법이 달라진다. 반면에 접속법이 약해진 영어의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가 직설법과는 달리, 원형이나(21a), 'were'(21c) 혹은 가정법 'would'(21d), 'to Inf'<sup>18)</sup>가 경우에 따라 쓰일 수 있다. 프랑스어 접속법이 요구되는 또 다른 유형은 관계절이다.

- (22) a. Il n'y a personne qui me *comprenne*.  
(There's no one who understands me.)  
b. L'entreprise a besoin de secrétaires qui *sachent* 10 langues.  
(The firm needs secretaries who know 10 languages.)  
c. C'est l'entreprise la plus dynamique que je *connaisse*.  
(It's the most dynamic company that I am acquainted with.)

존재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행사나 최상급이나 그에 준하는 표현이 동반된 선행사가 주어지면 관계절에 접속법이 쓰이며, 영어는 그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17) “Were I eating, I would sit.”, “If they were eating, they would sit.”, “Truth be told...”, “If I were you... I would do that.” 등이 그 대표적 유형이다. (<http://enc.daum.net/dic100>)

18) 이는 'that'가 이끄는 절보다 간편하므로 경제성 원리에 따라 빈번하게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어에서도 부정법과 보어절이 모두 가능한 경우 부정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주절의 주어와 보어절 및 종속절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속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정법을 사용한다.



## 5. 기타 문법적 상이성

언어가 다르면 당연히 어휘가 다르며, 많은 어휘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축자적으로(mot-à-mot) 사용하여 바른 문장으로 옮겨 내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 (23) a. Il *fait* froid. (It *is* cold.)  
 b. Quel âge *as-tu*? (How old *are* you?)  
 c. Comment *allez-vous*? (How *are* you?)  
 d. *Venez prendre un verre avec nous!* (*Join us and have a drink!*)  
 e. *Il faut arracher cette dent.* (*The tooth must come out.*)

(23a), (23b), (23c)에서처럼 가장 단순한 문장에서 영어의 ‘be’ 동사는 프랑스어의 ‘faire’나 ‘avoir’, ‘aller’ 등으로 차이를 보이며, (23d-e)는 전혀 다른 구문의 형태로 표현된다.<sup>19)</sup> 이는 외부 세계를 언어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의 차이나 유사하게 보이는 동사가 갖는 하위범주화 틀의 상이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attendre’나 ‘écouter’는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나, 이에 상응하는 영어 동사는 ‘wait for’와 ‘listen to’로써 적절한 전치사를 하위범주화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의 거의 모든 동사는 재귀 대명사를 수반하는 대명 동사(verbe pronominal)의 용례를 보이나, 영어에서는 재귀 대명사가 목적어 혹은 다른 보어로 우연히 일치한 구문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어의 대명 동사는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재귀적 용법과 주어 서로에게 미치는 상호적 용법, 동사에 의해 기술된 행위가 주어에게 행해지는 수동적 용법, 대명동사로만 쓰이는 본질적 용법으로 나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수동적 용법의 대명 동사이다. 프랑스어가 영어보다 훨씬 적은 빈도의 수동태 출현을 보이는 이유는, 수동태가 문어적이면서 공식적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명 동사가 존재하고 일반적 대명사 ‘on’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 (24) a. Tout le monde *aime* Patrick. (Everyone *loves* Patrick.)  
 → Patrick *est aimé* de tout le monde.  
 (Patrick *is loved* by everyone).  
 b. Ce produit *se vend* en pharmacie.  
 (This product *is sold* in pharmacy.)

19) (23d)의 영어 표현을 직역하여 ‘Joignez-vous à nous!’라고 쓸 수 있지만 프랑스어 표현에서는 어색하다.

c. *On vend ce produit en pharmacie.*

(They sell this product in pharmacy.)

프랑스어의 수동태 역시 영어와 유사하게 ‘être+ 과거분사+ par/de’로서 그 구조가 유사하며 수동태가 될 수 있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이고 수동태의 조동사는 être 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명 동사 구문은, 동작주 보어가 필요하지 않을 때, 수동태 대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어 ‘on’을 사용한 능동태를 대체 수단으로 갖기도 한다. 프랑스어의 수동태에서 과거분사는 주어의 성·수에 일치하고, 동작주 보어는 ‘par’나 ‘de’로 실현되지만, 동작주가 일반적 주어이면 생략될 수 있다. 영어와 또 다른 하나는 프랑스어에서 수동태의 주어는 능동태 타동사의 직접목적어만 가능하며, 간접목적어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25) a. *Patrick a donné un livre à Paul.*

(Patrick gave a book to Paul.)

b. *Un livre a donné à Paul par Patrick.*

(A book was given to Paul by Patrick.)

c. \**Paul a donné un livre par Patrick.*

(Paul was given a book by Patrick.)

발음에 있어서도, 모든 언어가 모음이 연이어 오는 현상을 회피하려는 장치를 갖는다. 그 1차적 도구가 ‘[j]’, ‘[w]’, ‘[ɥ]’라는 반자음(혹은 반모음)의 형태이다. ‘모음 충돌 회피hiatus’를 위하여 단어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단어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모음이 연이어 나타나면 가능한 모음이 자음처럼 소리 나면서 모음충돌이 피해진다.<sup>20)</sup> 프랑스어는 이러한 도구뿐만 아니라 보다 명쾌하게 들리게 하면서 힘이 덜 드는 모든 방식을 조직적으로 문법화했다.

(26) a. *piano* → [pjano]

b. *cadeau* → [kado], *Paul* → [pol], *vous* → [vu]

c. *le ami* → l’ami, *la amie* → l’amie,

d. *C'est un ami de Paul.* → [sɛ t œ̃n ami de pol]

e. *mange-t-il*, *arrive-t-elle*

f. \**ma amie* → *mon amie*,

g. *cet ami*(\*ce ami), *cette amie*

<sup>20)</sup> 영어에서도 모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an/the apple’의 경우 [ə]대신 [ən]으로 [n]을 삽입하거나 [ðə]대신 [ðj]로 발음한다.

철자상으로 여러 개의 모음이 이어지더라도 하나의 모음으로 발음하는 방식(26b)이나, (26c)처럼 앞 단어의 모음과 뒤 단어의 모음이 충돌할 경우 줄여 쓰는 모음 축약(élision), (26d)에서와 같이 앞 단어 마지막에 위치한 소리나지 않는 자음을 소리 나게 하는 연독(liaison), 새로운 자음을 삽입하는 방식(26e), 한정사의 다른 성의 형태를 붙이는 경우(26f) 혹은 여성형과 유사한 제2형을 남성형으로 설정하는 방식(26g) 등으로 다양하다.

주절에 언급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기술하는 관계절 역시 프랑스어와 영어는 ‘선행사+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영어의 경우 ‘who, whom, which,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로 관계절을 시작하고, 프랑스어는 단순형으로 ‘qui, que, dont, 전치사+ qui’과 복합형으로 선행사의 성과 수가 반영된 ‘lequel, laquelle, lesquels, lesquelles’을 구분하여 사용한다.<sup>21)</sup> 어휘적 요소 외에 두 언어의 관계절이 다른 점은 목적어 관계대명사의 생략 여부와 관계절을 이끄는 동사구 혹은 형용사구에 필요한 전치사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 (27) a. la femme *qui* étudie beaucoup  
(the woman *who* studies a lot)  
b. les étudiantes *que* nous avons aidées<sup>22)</sup>  
(the students (*whom*) we helped)  
c. les affaires *dont* il s'occupe  
(the matters *that* he's taking care of)  
d. la matière *à laquelle* je m'intéresse  
(the subject *in which* I'm interested / *which* I'm interested in)

(27a)는 주격이고 (27b)는 목적격이며 (27c)는 전치사 ‘de’와 결합된 형태이고 (27d)는 사물 선행사가 ‘전치사+ 복합형’과 어울린 경우이다. 영어에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고 관계절 내의 전치사가 제자리에 남을 수도 있고(전치사 좌초 preposition stranding) 관계대명사와 함께 선행사 바로 뒤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이 불가능하고 전치사는 좌초될 수 없다.

21) 프랑스어의 관계대명사는 사람과 사물에 구분 없이 사용되나 ‘사물 선행사+ 전치사+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복합형만이 올 수 있다.

22) 프랑스어의 ‘avoir+ p.p.’형의 복합시제에서 직접목적어가 과거분사에 선행할 경우, 과거분사는 그 목적어의 성수에 따라 일치하는 점도 영어와 다른 점이다. 과거분사 ‘aidé’는 직접 목적어인 선행사와의 일치를 위해 ‘es’가 붙었다.

#### IV.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프랑스어와 영어의 공통의 토양과 역사적 상호 영향력을 바탕으로 두 언어가 갖는 문법적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았다. 문법 기술에 있어 최고의 전범이던 라틴어를 토대로 한 두 언어의 문법은 거의 모든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언어는 발음과 어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언어를 통한 세계관에서도 상이하며 각 언어가 변해온 과정도 다르다. 영어의 장점인 굴절의 단순화와 프랑스어의 장점인 발음의 정형화를 기반으로 작은 차이들이 시작되어, 서로 다른 어순을 갖는 구문이 존재하고, 동사의 서법이나 시제에서도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관사의 용법에서도 개념은 동일하나 실제에서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수동태와 관계절에서도 미묘한 용례들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영문법으로 문법 지식을 확보한 학생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들을 공통으로 갖고 있기에 이러한 사전 지식을 활용하게 하고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하면 상당한 학습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두 언어가 갖는, 보다 세밀한 차이까지는 이 논문이 모두 다루지 못했으며, 나머지는 이후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박영배. (2003). *앵글로색슨족의 역사와 언어*. 지식산업사.
- 이창순. (2000). *프랑스어사개요*. 신아사.
- Baugh, A. C. (2009). *영어발달사*. (김순신 역). 서울: 한신문화사. (원전은 2000년에 출판).
- Briand, M. (1988). *Grammair Active de l'Allemand*. Les Langues Modernes.
- Chaurand, J. (1977). *Introduction a l'Histoire du Vocabulaire Française*. Bordas.
- Guibert, L. (1976). *Grand Larousse de la Langue Française*. Librairie Larousse.
- Giust, A. (2004). *프랑스어*. (최재호 역). 서울: 도미노총서.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Imbs, P. (1960). *L'Emploi des Temps Verbaux en Français Moderne*. Librairie C. Klincksieck.
- Kayne, R. (1984). *Connectedness and Binary Branching*. Foris Publications.
- Knowles, G. (1997). *A Cultural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Arnold.

- Pollock, J.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3), 365-424.
- Stillman, D. M., & Gordon, R. L. (1999). *The Ultimate French: Review and Practice*. Passport Books.
- Walter, H. (1988). *Le Français dans tous les Sens*. Robert Laffont.
- Wartburg, W. (2000). *프랑스어 발달사*. (김현권 역). 서울: 한국문화사. (원전은 1987년에 출판).

김경석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전 화: 043) 261-3142

이메일: kskim@chungbuk.ac.kr

Received on June 20, 2011

Reviewed on Sept 15,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5, 2011

Accepted on Dec 2, 2011